

사진예술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The Monthly Photographic Art Magazine **사진예술** Sajinyesul

294 2013.10

www.photocart.co.kr

월간사진예술 1988년 12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라-3903 | 매월 25일 발행 | 우편번호: 110-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3층 서브 8동 825호 | 전화: 737-8114, 730-1651 | 팩스: 730-1655 | 1992년 3월 16일 제33종 우편물 등록 | 가격: 9,000원





Manjari Sharma, Lord Ganesha, 2013. Digital Chromatic, Courtesy of the artist.

글 · 민혜령 Mr. Hyey-Ryung 뉴욕특파원

Darshan : : Manjari Sharma

인도출신 사진가 만자리 샤르마

Clam Art(521-531 West 25th Street, NY, NY) 9.12-10.12 clamart.com

만자리 샤르마 Manjari Sharma,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고 사랐으며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사진가 만자리는 Shower 시리즈를 포함한 전 작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그룹전과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1년에는 PDN 30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2012년에는 Santa Fe Prize에서 Honorable Mention이 되기도 했다. 만자리의 작업은 "Forbes India Magazine", "Vogue India", "Geo Magazine" 등에 게재되었으며 "NPR", "The New York Times", "The Huffington Post", "PDN", "Life Magazine" 등의 온라인에 실리기도 했다. 2011년 Kickstarter로 Darshan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모금 운

NY



Manjari Sharma, Lord Hanuman, 2013. Digital Chromatic, Courtesy of the artist.

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년 동안 작업해온 프로젝트를 올해 완성한 후 헬시 클랜아트 갤러리에서 뉴욕에서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인도의 사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검은 색으로 칠해진 갤러리의 코너에는 향과 램프가 놓여 있었고, 인도의 장인이 제작한 금빛의 수공예 액자 안에 떠오른 Darshan은 그녀가 어릴 적 보아왔던 사원의 신들처럼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manjarisharma.com

HRM: 다산에 대해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이 작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작업 과정은 어땠는가?

다산은 나의 갈망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태어나 자라며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힌두신을 평생 보며 살아왔기에 그것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것은 내게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에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왔을 때 미술관과 갤러리 전시를 보러 다니게 된 것은 내가 가족들과 인도에서 사원을 방문하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인도의 여러 사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 아버지는 인도의 곳곳을 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열렬한 로드 트립 여행자이고, 어머니는 영혼의 여행자 혹은 여행의 관리자로서 떠날 때마다 어떤 사원을 방문해야하는지 철저히 계획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성시 참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의도하시는 않았다. 우리가 고대의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코스는 멋진 경치가 펼쳐진 목적지나 레스토랑에 가는 일과 빈틈없이 짜여 있었을 뿐이다. 나중에 나는 미술관에 가는 것과 절에 가는 것 사이에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과정은 실행과 신뢰, 그리고 전념이라는 요소를 통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부모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절을 방문해야만 했듯이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미술관의 공간에 내 기억속의 다산으로 그 컨텐츠를 바꾸고 내가 상상하는 사원의 모습이 설치되는 상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2010년 가을 다산을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첫 시도는 2011년 1월 뭄바이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Maa Laxmi의 이미지를 완성시켰고 그 해 가을 두번째 작업에서 4개의 이미지를 더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마지막 4개의 이미지를 더 만들어 3년동안 총 9개의 작품이 완성된 것이다.

HRM: 당신에게 다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산을 만드는 것은 오케스트라나 세심하게 계획된 트래킹에 오르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끝끝내 정상에 도달해 위를 올려다 봤을 때 그 위에 또 넘어야 할 언덕이 있는 그런 트래킹이다. 아마도 그렇게 좋은 작업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시도하는 순간마다 그 정상이 더 높아지는 것. 다산을 만드는 것은 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았는데 그 피포먼스라는 것이 매 이미지마다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다산은 산스크리트어이지만 힌두 숭배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다산은 사원에서 일어난다. 사원에서 보통 다산의 시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오전 6시, 오후 6시가 그렇다. 보통 새벽녘과 해질녘에 다산이 있다. 즉 궁극적으로 다산은 일어나는 어떤 일. 혹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의 감각을 불러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경험이라고 정의하면 가깝겠다. 열성 신자들은 주로 힌두교의 신들로부터 다산을 찾기를 원하지만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산은 여러 가지의 조합이기도 하다. 그것은 시작적인 질감, 어떤 분위기, 후각 등의 의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쌓이는 겹겹의 어떤 예측으로부터 시작

행운인 콜라보레이터이기도 한 나의 남편의 도움과 나의 샤르마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와 함께 큰 위험을 감수하신 셈이다. 오늘까지 계속 되는 그들의 지지에 나는 끝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첫번째 작품 이 후 키프스타터로 네개의 이미지를 더 해낼 수 있었고, 그것으로 프로젝트의 반을 끝낼 수 있었다. 이 후에는 작품 판매가 도움이 되어 마침내 2013년 여름 마지막 네개의 이미지를 더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HRM: 당신의 앞선 작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스타일 뿐만 아니라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작 규모도 훨씬 작다. 어떤 차이를 느끼는가? 미래에는 또 어떤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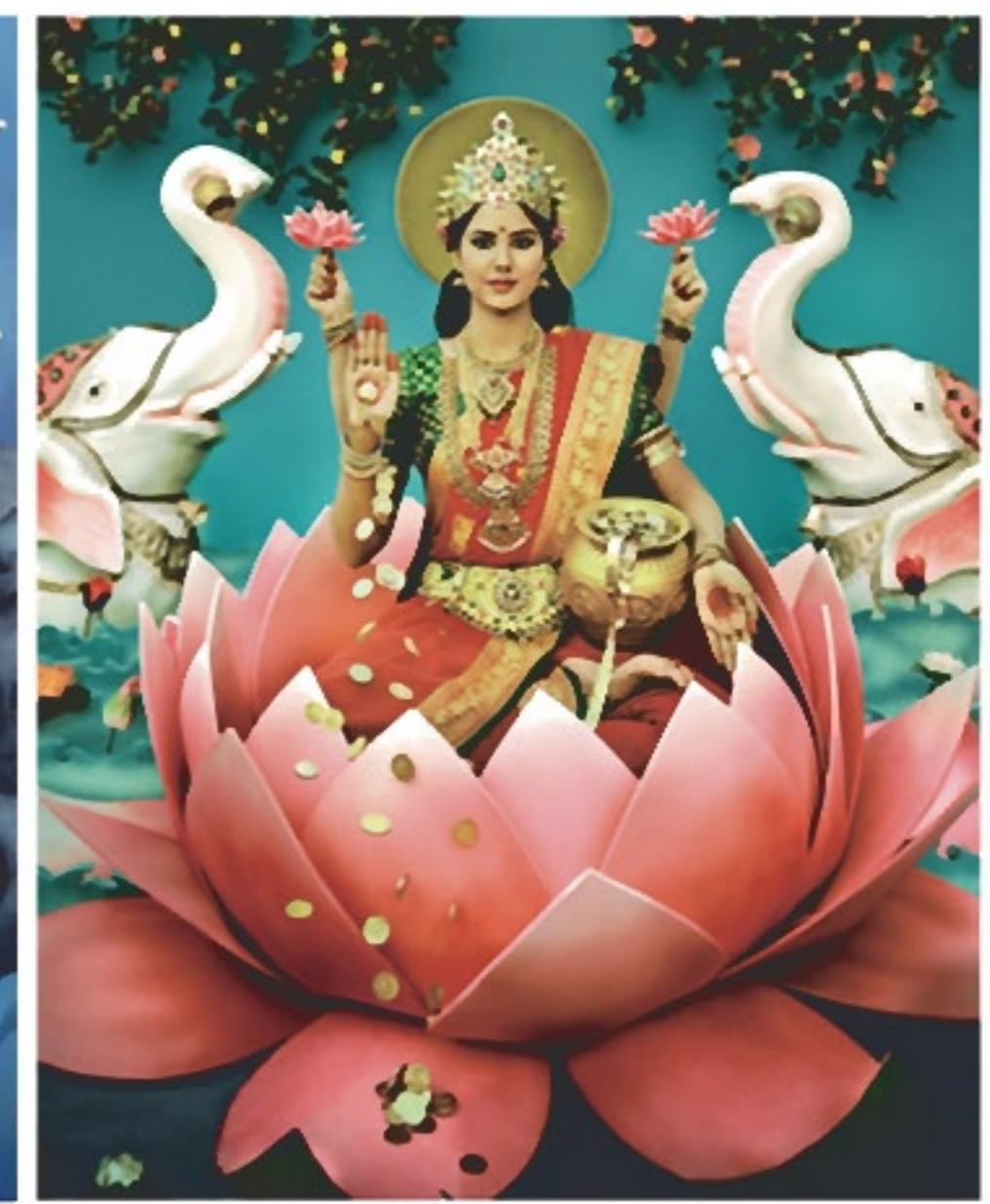
내 작업 전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나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생각해보면 샤워 시리즈 역시 하나의 다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와 즉흥적인 친밀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희망을 품은 진실된 순간이라고 하겠다. 놀랄 만큼 선명한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하는 관계들이 이 샤워 시리즈에 분명하게 형성되었다. 내가 그들을 촬영할 때, 렌즈에는 김이 서리고, 내 발도 젖어 왔다. 그런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단지 몇 컷의 셔터에 불과한 여행이라는 사실에서 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했음이 분명하다. 나는 다른 이들이 그렇듯이 내 작업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알아가게 된다. 작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질주와 욕망을 따라가는데 스스로에게 진실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내 작업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나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래? 이미 촬영하기 시작해 작은 시리즈 형식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서 전에 보아왔던 어떤 작품과도 같지 않을 것이란 걸 장담할 수 있다. 반드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다. 무언가 시작했을 때 나의 탐험이 언제나 새롭기를 바란다. 매번 새로운 컨셉, 새로운 방향, 새로운 작업 방식을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것은 내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스타일이나 색채 등에 제약 없이 작업하기를 선호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다른 이들이 그럴 것이듯 더 많은 발견의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Lord Shiva의 긴머리가 흘러져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는 민자리



Manjari Sharma, Lord Vishnu, 2013. Digital Chromatic. Courtesy of the artist.



Manjari Sharma, Maa Laxmi, 2013. Digital Chromatic. Courtesy of the artist.

HRM: 당신은 인도에서 왔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는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곳과 다른 이곳 뉴욕에 살고 있다. 특히 이 시리즈를 위해 인도에 가야만 했고 인도인들과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 예술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이다. 극명한 대조는 영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다산에 둘러싸인 사원은 인도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일어나던 일들이다. 어떤 것은 특별했고 어떤 것은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것들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이 오히려 그 것을 해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나에게는 굉장히 일로 느껴진다.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을 나는 적극 권장한다. 편하게 느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많은 것을 추론해보는 것 또한 강력히 추천하겠다. 극심한 괴로움, 아픔 그리고 그 순간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예술을 위한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변화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어떤 두려운 것, 가혹한 것으로 내던져보라. 그것이 새로운 답을 이끌어낼지 또 그것이 너를 영원히 변화시킬 답을 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나의 경우 내가 어떤 것을 시도하고 어떤 면에서 우주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폐기해버리는 순간을 즐긴다. 내가 소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소모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펜이고 다른 누군가가 그 펜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인 것이다. ■

된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찾고자 한 비전이 당신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다른 여러 가지들에 의해 더욱 형태를 갖추어간다. 그 비전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당신을 어디론가로 인도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모든 기억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내게 다산을 찾아가는 이 형태가 “삶”과도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게 삶은 한 다산에서 다른 다산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정의 내려질 수도 있다.

HRM: 그렇다면 당신은 작품에 영향을 미친 기억에 남을 다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다산은 시각적으로 불타오르는 듯 하거나 감각의 경험의 조화와 같은 특별한 관계로 인해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것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어떤 연결고리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역사, 환상, 정신세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독특한 수학방정식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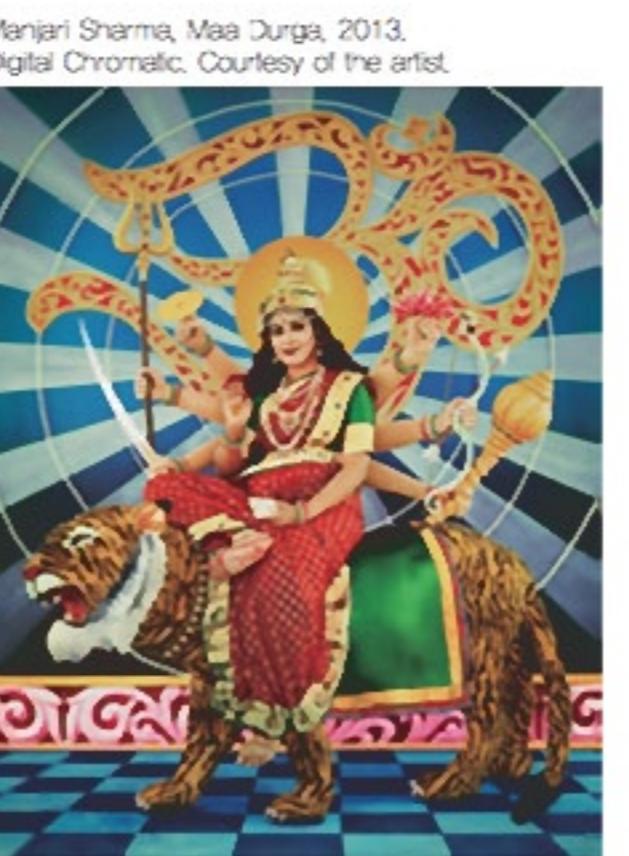
우타라칸드(Uttarakhand 역주: 인도 북구에 있는 주)의 초파(Chopa)라고 불리는 히말라야를 등반했을 때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사원으로 향하는 트레킹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나와 남편은 정오가 되어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오를 지나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구름이 몰려와 우리 주위의 산들을 360도 뒤덮기 시작했다. 우리가 막 정상에 올라 어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작은 사원을 발견했는데, 우리곁의 산맥이 구름의 겹으로 덮혀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너무나 작았던 그 사원 주위로 줄에 매달린 종들은 바람이 그 걸을 지날 때마다 부드럽게 울려댔다.

HRM: 다산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제작과정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어땠는가.

이 작업을 위한 프로덕션 팀은 그야말로 그들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업을 기록한 동영상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셋트는 대규모의 제작과 공사를 필요로 했다. 우선 필요한 연구와 계획 후 가장 어려웠던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각 분야의 적임자를 찾는 일이었다. 그렇게 적임자를 찾은 후에는 조각가가 팔이나 머리 등의 주물을 제작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그러한 인공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 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한 그룹의 인도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에 작업들이 형태를 갖추며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일이었다. 스템들의 대부분은 영화 작업을 해오던 이들이었기에 그들이 주로 만들었던 세트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후에 이들 예술가들이 나의 작업에 그들이 쓴 정교한 수준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내 작업중 코끼리 신, Lord Ganesha를 만들 때 기록한 비디오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https://vimeo.com/25732686>

HRM: 각각의 작업에 모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 프로덕션이나 리서치, 후반작업 중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ord Ganesha 와 Lord Hanuman의 작업중 어려웠던 것은 모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의 목을 축여주거나 음식을 먹여 주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인공기관을 장착한 후에 메이크업과 함께 마스크를 씌워야하는데 한번 마스크를 쓰면 메이크업을 하고 작업을 한 후 마스크를 폐기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Maa Laxmi를 촬영할 때에는 적당한 시각적인 앵글을 찾는 것이 도전이었다. 모델은 뒷면으로부터 30도가 기울어진 연꽃위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기울어진 연꽃받침에도 불구하고 90도의



Manjari Sharma, Maa Durga, 2013.
Digital Chromatic. Courtesy of the artist.



인도 뭁바이 촬영장에서 대형카메라인 Sineq 암에서 야간촬영 중인 만자리

자세로 몸을 꼿꼿이 세워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연꽃의 안쪽 모습까지 보기를 원했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적 관점은 회화에서는 쉽게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에서의 소멸점은 그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다.

HRM: 이 작업을 위해 킥스타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모금을 했다. 그 경험은 어땠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 킥스타터(Kickstarter 역주: 온라인 베이스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누구나 기금 모금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기부자들에게는 정해놓은 보상-작은 사이즈의 작품 프린트나 작품에 관련된 선물 등—을 되돌려주며 일정 기간동안 목표금액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모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킥스타터는 쉽지 않았다. 그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작업의 제작과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커기에 킥스타터의 도움없이는 결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킥스타터는 또한 이 프로젝트를 노출시키는 게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되었다.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긍정적인 소개를 해주었고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지지자들과 전세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쿄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내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의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며 자극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HRM: 킥스타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작업을 시작했고, 킥스타터를 성공하면 프로젝트의 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미 개인으로서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결심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9개의 이미지를 만들 계획으로 시작했고, 첫 이미지는 개인펀드로 해야했는데 그것은 비용면에서나 작업면에서나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에게는 너무나